

# <정읍사>의 불교적 성격 연구\*

이 연 숙\*\*

## 차 례

- |                 |                   |
|-----------------|-------------------|
| I. 서론           | 3.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의 관련 |
| II. 본론          | 4. <정읍사>의 불교적 성격  |
| 1. 기존의 연구 성과 검토 | 5. <정읍사>의 생성 시기   |
| 2. 문헌기록의 분석     | III. 결론           |

## I. 서론

『악학궤범』에 가사가 전하고 있는 <정읍사><sup>1)</sup>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목, 창작시기, 내용, 어석 등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연구 결과들은 다양하여 아직도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읍사>의 내용이 무척 단순하게 보이는 듯한데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

\* 이 논문은 2003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조성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고려사』~삼국속악조에서는 ‘정읍’이라 하였다. 『악학궤범』에서 <정읍사>라고 한 것은 가사 부분을 부른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삼국속악조나 고려속악조의 다른 작품의 제목을 보더라도 ‘詞’가 제목에 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동> 등도 음악적인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읍>을 제목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학계에서 <정읍사>로 거의 통용되고 있으므로 <정읍사>를 따르고자 한다.

다는 것은 오히려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sup>2)</sup> 생각된다.

그런데 <정읍사> 연구의 초점이 되어 있는 위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사용된 중요한 자료는 거의 예외 없이 『고려사』악지와 조선시대의 『성종실록』이나 『중종실록』과 같은 문헌의 기록들이다. <정읍사>의 내용이나 어석에 있어서, 똑같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상반된 해석들을 보이고 있음은 이들 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겠다.

작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읍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난 뒤, <정읍사> 성격을 불교적인 측면에서 다루기로 하되 『중종실록』등의 문헌자료,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구성과의 관계, 일본의 유사한 작품과의 비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읍사>의 달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기존의 연구 성과 검토

<정읍사>의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부 윤리의 노래로 본 경우<sup>3)</sup>이다.

- 
- 2) 임주탁도 논문 「정읍」의 창작 시기」에서 정읍의 주제적 성격이 ‘장사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무사귀환을 바라는 아내가 지어 부른 노래’, ‘남녀간 음사가 들어 있다’로 상이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은 「정읍」의 비유가 단순 소박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도의 함축성을 띤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韓國詩歌研究』창간호, 1997. 5, 322쪽.)
- 3) 양주동, 『麗謠箋注』(을유문화사, 1946), 61쪽.  
박지홍, 『註釋高麗歌謠』, 『현대문학』75호, (1961), 278쪽.  
조운제, 『한국문학사』(탐구당, 1971), 84~85쪽.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 1977), 103쪽.

김형규는 男便 오는 앞길을 念慮하는 女人의 心情的 표현이라고<sup>4)</sup> 보았고 정병욱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 길 가다가 저물면 아무데서나 짐작을 부리고 고달픈 몸을 꼭 쉬어서 가기를 부탁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의 그 따뜻한 마음씨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믿음을 또한 느끼게 하고 있다. 혹시나 바람을 피우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 또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한 같은 것을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애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sup>5)</sup>

고 하였다. 허소라도 ‘이 女人의 달을 向한 發願 속에는 어떤 질투나, 상스럽지 못한 雜念에 앞서 오로지 님(남편)만을 생각하는, 男便外的 自己不在를 企圖하는 至純至高한 아내의 사랑이 潛在되어 있는 것이다’고<sup>6)</sup> 하였다.

이처럼 <정읍사>를 음란한 내용으로가 아니라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노래로 본 경우는 그 근거를 『고려사』 권71 지25 약2 삼국속악조에 두고 있다. 기록을 보면 백제속악으로 <禪雲山> · <無等山> · <方等山> · <井邑> · <智異山>을 들고 <정읍>에 대해서는,

정읍은 전주의 소속현이다. 고을사람이 행상하러 나간 지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처가 산봉우리 돌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서 그의 남편이 밤에 여행하다가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그 말을 진흙물에 몸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으로 노래를 지었는데 세상에서는 등점망부석이 있다고 전한다.<sup>7)</sup>

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특히 ‘犯害’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허소라, 『井邑詞 主題攷』, 『국어문학』20, (전북대학교, 1979), 586쪽.

전규대, 『韓國詩歌研究』(고려원, 1986), 257쪽.

성호주, 『國文學新講』(새문社, 1988), 85쪽.

김형규, 『井邑詞 註釋』, 『서울대학교 논문집』2집, (서울대학교, 1955), 301쪽.

4) 김형규, 위의 논문, 301쪽.

5) 정병욱, 앞의 책, 103쪽.

6) 허소라, 앞의 논문, 586쪽.

7) 井邑全州屬縣 縣人爲行商 久不至 其妻登山石 以望之 恐其夫夜行犯害 托泥水之汚以歌之

이처럼 『고려사』대용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음사>를 행상인의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이 혹시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 안위를 걱정하며 부른 노래로 본 것이다.

둘째는 남녀간의 성적인 내용을 노래한 淫褻之詞<sup>8)</sup>로 해석하여 남편에 대한 성적 질투로<sup>9)</sup>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이 혹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 질투심을 나타내는 노래로 보고 있다. 지현영은 ‘井邑’을,

忠淸·全羅·慶尙地方에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肉體 안의 禁斷地域을 상징하는 隱語 ‘샘골’·‘웅달샘’(‘즌디’와 通, ‘내가논디’와 應)을 들어 두어 大方의 討究 鑑賞을 바랄까 하는 것이다.<sup>10)</sup>

고 하고, ‘샘골, 웅달샘’으로 풀이하여 女體의 性的 상징으로 파악함으로써 제목 자체부터가 음란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어령은,

『진데』를 『犯害』로 보느냐 혹은 女子의 陰所로 보느냐에 따라 이 詩가 로맨티시즘이 되느냐 리얼리즘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되는데 아무래도 후자 쪽이 유리합니다. (중략) 저자는 지금으로 볼 때 여자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都市』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客主집이 있고 술 파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진흙이 있는 더러운 곳으로 비유했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흔히 창녀를 뜻한 은어로 쓰인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sup>11)</sup>

라고 하여 ‘진데’를 여자의 陰所로 보았다. 이처럼 <정음사>를 淫詞로 본 경우는 주로 ‘진데’를 여성의 성적인 상징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성적인 내용으로 보는 근거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에 있는 듯하다.

그 하나는 『중종실록』 권32 중종13년 4월조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장덕순도 이어령의 해석에 동조하면서 『중종실록』의 기록을 들어,

8) 지현영, 『井邑詞 研究』, 『高麗歌謠研究』(정음사, 1979), 363쪽.

9)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탐구당, 1981), 171쪽.

10) 지현영, 앞의 논문, 340쪽.

11) 정병욱, 이어령, 『고전의 바다』(현암사, 1977), 69쪽.

더구나 後說을 有力하게 하는 것으로 中宗實錄 三二卷에 <井邑詞>가 淫詞이니 宮中에서 불러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그 대신 五冠山을 부르자는 남편의 상소가 있습니다. 남편만을 기다리는 순수한 노래라면 婦德을 나타낸 것인데 淫詞라고 말할 턱이 없다는 게지요. 그리고 行商人의 妻라면 교양있는 사대부집 여인들이 아닐 테니까,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여자라도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질투심이 앞설 것도 당연하지요.<sup>12)</sup>

라고 하여 음란한 노래로 보았다. 지현영도 『중종실록』의 기록들을 살피고 나서,

현존 『樂學軌範』(成宗 24年刊)의 ‘井邑詞’는 成宗대에 있어서 羅末 전래의 모습을 지니고 유지되었던 것이 中宗대의 朝臣들에 의하여 第2次的으로 ‘男女間淫詞’로 高確되어 ‘動動’·‘井邑’ 兩詞가 폐기 改新되어 新製樂章으로 對替되어 간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여하간 『中宗實錄』의 기록은 本稿가 ‘井邑詞’를 淫褻之詞로 해석한 견해와 호응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3)</sup>

고 하여 『중종실록』에서 <정읍사>를 음사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또 경기체가 <한림별곡>의 8연 중의 가사 ‘내가논데 남갈세라’의 ‘내가논데’가 성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이 말은 당시의 은어였을 것이라고 보아 <정읍사>의 ‘내가논데 점그랄세라’도 ‘나의 가는 곳’(남이 가서는 아니 되는 곳), 즉 성적인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sup>14)</sup>

이처럼 <정읍사>의 내용면에서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두 해석의 근거는 결국 모두 『고려사』 기록이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며, 어느 기록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결국 어석도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부윤리의 노래로 본 경우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빠질까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보면서 부분적인 어석을 음사로 해석한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대립적인 해석이 아니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

12) 정병욱, 이어령, 위의 책, 69쪽.

13) 지현영, 앞의 논문, 341쪽.

14) 지현영, 위의 논문, 337판.

음사>를 불교적인 측면에서 논하면서 이 양자의 해석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한다.

## 2. 문헌기록의 분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음사>에 대한 일반적인 두 종류의 해석은 어느 문헌자료를 중시하였는가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정음사>를 음사로 본 연구자들은 고려 속악의 대부분을 음사로 본 조선시대의 『중종실록』, 『성종실록』 등과 같은 악장개편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허남춘은 조선조 사대부가 고려 속악을 두고 내린 평가가 ‘淫詞’와 ‘男女相悅之詞’였는데 이 때의 ‘淫’은 조선조 사대부의 미적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정서가 무절제하게 발산되어 ‘지나치다(過)’의 의미이지, 꼭 음란을 적시한 것은 아니며 고려조에는 향락적 서정을 풍류로 여겼지만, 조선조에는 규제된 미의식과 규범적 자연미를 풍류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미의식의 차이에서 속요가 폄하된 것으로<sup>15)</sup> 보았다.

과연 모든 고려 속가 작품을 일괄적으로,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이나 가사가 음란한 작품 들을 고려하지 않고 미의식의 차이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긴 하지만, 조선조의 기록에 고려속가가 음사로 처리된 것은 결국 고려와 조선시대의 미의식의 차이임을 논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정음사>의 경우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미의식의 기준에 비추더라도, 다른 고려속가와 같이 처음부터 가사의 음란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았음을, 기록들을 분석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중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음사>를 과연 음설지사의 노래로 보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중종실록』 권32 중종13년 4월조의 기록을 보면,

대제학 남곤이 아뢰기를, “전일 신에게 악장 속의 음사나 석교에 관계있는 말을 고치라고 명하시기에, 신이 장악원 제조 및 음률을 아는 악사와 진

15) 허남춘, 『고려가요와 예악사상』,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月印, 1999), 180쪽.

지한 의논을 거쳐 아박정재 동동사 같은 남녀 음사에 가까운 말은 신도가로 대신하였으니, 이는 대개 음절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신도가는 아조가 한 양으로 천도할 때 정도전이 지은 것인데, 이 곡은 문사를 쓰지 않고 방언을 많이 써서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없으나 토풍을 보존해야 할 것이요, 또 절주로 말하면 옛날에는 느린 것을 숭상하였으나 지금은 촉박함을 숭상하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고정재 정읍사는 오관산으로 대용하였으니, 이것 역시 음률이 서로 맞기 때문입니다. 처용무·영산회상은 새로 지은 수만년사로 대치하였으며, 본사찬·미타찬도 새로 지은 중흥악사로 대치하였는데, 이 두 곡은 모두 이단에 가까운 것으로 역시 신에게 고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찬하였으나 이 곡은 곧 세조조에 지은 것이며 영산회상은 다만 영산회상 불보살의 한 마디 말로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대저 처용무는 본래 부정 괴이한 악이기 때문에 또한 이 곡을 불인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무를 잡희 중에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가사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중략) 전교하기를, “아뢰는 말이 다 옳다. 처용무 등은 아뢰는 말과 같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옳지 못한 옛 습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필시 많을 것이니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곧 남근이 제작한 악장으로 옛 악장을 대신하게 하였다.<sup>16)</sup>

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보면 악장 개편의 기준은 남녀간의 음사나 석교에 관계있는 말의 사용 여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 보면 <동동>의 경우는 ‘남녀음사에 가까운 말’이므로 음절이 같은 <신도가>로 대체한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사찬>과 <미타찬> 2곡은 이단, 즉 불교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새로 지은 <중흥악사>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용무>는 위의 두 가지 기준, 즉 음사와 석교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내용이 괴악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용가>가 고려시대에는 역귀를 내쫓는 儺禮 의식에서 불리며 중요시되었으나 유교이념을 표방하는 조선시대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행사를 행하면서도 부정 괴악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불교적인 것을 석교라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부정 괴악

16) 己巳朔 大提學 南袞啓曰 前者 命臣改製樂章中語涉淫詞釋教者 臣與掌樂院提調及解音律樂師 反覆尙確 如牙拍呈才動動詞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 皆以音節同也 新都歌乃我朝移都漢陽時 鄭道傳所製也 此曲非用文詞 多用方言 今未易曉 土風亦當存之且節奏 古則徐緩 今則急促 不可改也 舞鼓呈才井邑詞 代以五冠山 亦以音律相此也 處容 舞靈山會相 代以新製壽萬年詞 本師讚彌陀讚 代以新製中興樂詞皆且二曲 皆涉異端 亦命臣正之故 不得已 撰之

하다고 한 것은 무속적인 내용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산회상>에 대해서도 ‘영산회상은 다만 영산회상 불보살의 한 마디 말로 끝나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석교를 문제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읍사>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위의 『증종실록』T3년 4월조에서 언급한 악장 개편의 대상이 된 작품과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대상 작품	대체된 작품명	대체 이유
아박정재 동동	신도가	남녀 음사와 관련된 내용
무고정재 정읍	오관산	음사? 석교?
처용무	수만년사	부정 괴이한 악
영산회상	수만년사	불교적인 것
본사찬, 미타찬	중홍악사	석교 이단적인 것
영산회상	중홍악사	석교 이단적인 것

이처럼 『증종실록』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작품 중 아박정재 <동동>·<처용무>·<영산회상>·<본사찬>·<미타찬>은 모두 개편의 이유가 한 작품씩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정읍사>에 대해서만은 ‘음율이 맞기 때문에 오관산으로 대응한다’고만 했을 뿐 <오관산>으로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그 내용이 음설하기 때문이라거나 불교적인 내용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처용가>처럼 괴악하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이유가 문제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사를 문제로 삼은 <동동> 다음에 설명되고 있어 <정읍사>도 음사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후 서술 구성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위의 전후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정읍사>는 음사와 석교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그 두 기준의 경계 영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음사·석교’ 등의 가치 척도에서 보았을 때 <정읍사>의 내용이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동동>의 설명에 해당하는 ‘음사’를 그대로 <정읍사>에도 적용시켜 <정읍사>의 내용이 남녀간의 음사적인 것이라고 보

았으며 따라서 어석 연구도 그에 맞추어 갔던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자들이 <정읍사>를 읊사로 보는 근거는 위의 『중종실록』의 기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고려속악들의 대부분의 가사가 남녀 상열의 내용인 점, 고려 말의 궁정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연향, 조선시대에 고려속악 가사의 읊사가 문제가 되어 자주 산개에 관한 논의가 있는 점, 한림별곡 8연의 ‘내 가는데 남갈세라’ 등과 관련하여 남녀간의 읊사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는 곳, 즈데’를 여성의 신체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정읍’까지 ‘샘골, 웅달샘’ 등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은어로 해석하여 남녀간의 읊사로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중종실록』에 <정읍사>의 가사 개편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정읍사>를 읊사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종종 때의 가치 기준에 의한 것일 뿐이며, <정읍사>가 다른 고려 속가와 같은 기준의 읊사는 아니었음을 다음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성종실록』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성종실록』 19년 4월조를 보면

전교하기를, “종묘악의 보태평·정대업과 같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속악의 서경별곡과 같은 것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이니, 매우 불가하다. 악보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곡조에 의하여 따로 가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략)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악은 희문으로부터 역성까지가 보태평이니 영신과 초헌에 쓰는 것이고, 소무로부터 영관까지가 정대업이니 아헌과 종헌에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가사가 있어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속창이 아닙니다. 다만 정대업의 혁정은 곡조와 가사가 만전춘과 유사하고 영관은 곡조와 가사가 서경별곡과 유사해서 이것이 듣기에는 속창에 가깝습니다.”<sup>17)</sup>

라 하여 <서경별곡> 가사가 남녀상열지사여서 좋지 않으므로 가사를 따로 짓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성종실록』 19년 8월조

17) 傳曰 宗廟 如保太平 定大業則善矣 其餘俗樂 如西京別曲 男女相悅之詞 甚不可樂譜則曲不可卒改 依曲調別歌製詞何如 (中略) 禮曹啓曰 宗廟之樂 自熙文至繹成保太平也 用於迎神初獻 自昭武至永觀 定大業也 用於亞獻終獻 各有歌詞 非男女相悅之俗唱也 但定大業赫整調詞似滿殿春 永觀調詞似西京別曲 是以聽之 近於俗唱耳

를 보면,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 이세좌가 아뢰기를, “요사이의 음악은 거의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를 쓰고 있는데 이는 곡연이나 관사에 거동하실 때는 써도 무방합니다만, 정전에 입어하시어 군신을 대할 때 이 속된 말을 쓰는 것이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장악 제조가 되었으나 본래 음률을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러하오나 들은 바대로 말씀드린다면 진작은 비록 속된 말이나 충신이 임금을 그리는 가사이므로 쓴다 해도 방해될 것이 없으나, 다만 간간이 노래에 비루하고 저속된 가사로 후정화·만전춘 같은 종류도 많습니다. 치화평·보태평·정대업 같은 것은 곧 조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가사로서 마땅히 이를 부르도록 해서 성덕과 신공을 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기공들은 누적된 관습에 젖어 있어 정악을 버리고 음탕한 음악을 좋아하니, 심히 적당하지 못합니다. 일체의 속된 말들은, 청컨대 모두 연습치 말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다만 누적된 관습이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개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당 조(曹)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sup>18)</sup>

고 하였다. <후정화>·<만전춘>류가 鄙俚之詞임으로 가사를 고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오래 사용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종실록』 21년 5월 21일조에는,

앞서 서하군 임원준·무령군 유자광·판윤 어세겸·대사성 성현 등에게 쌍화곡·이상곡·북전가 중에서 음란한 가사를 고쳐 바로 잡으라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임원준 등이 지어 바쳤다. 전교하기를, “장악원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라” 하였다.<sup>19)</sup>

라 한 기록으로 미루어서도 알 수 있다.

18) 上御經筵講訖 特進官李世佐啓曰 方今音樂 率男女相悅之詞如 曲宴觀射行幸時 則用之無妨 御正殿 臨群臣時 用此俚語 於事體何如 臣爲掌樂提調 本不解音律 然以聞言之 眞勻雖俚語 乃忠臣戀主之詞 用之無妨 但聞歌鄙俚之詞 如後庭花滿殿春之類亦多 若致和平保太平定大業 乃祖宗頌功德之詞 固當歌之 以褒揚聖德神功也 今妓狃於積習 舍正樂而好淫樂 甚爲未便 一應俚語請皆勿習 上顧左右 領事李克培對曰 此言是也 但積習已久不可遽革 今諸曹尙儀以啓 上曰可也

19) 先是 命西河君任元濬 武靈君柳子光 判尹魚世謙 大司成成倪 刪改雙花店 履霜曲 北殿歌 中淫褻之辭 至是元濬等撰進 傳曰令掌樂院肆習

위의 기록들에서 보면 성종 때 끊임없이 <서경별곡>·<후정화(북전)>·<만전춘>·<쌍화점>·<이상곡>의 가사가 음란한 내용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고 산개되고 했을 때에 <정읍사>는 빠져 있다. 이것은 <정읍사>가 조선시대 성종 때에는 음사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즌데, 내가논데’와 같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상징하는 음사가 쓰여진 것이라면 이 작품이 왜 성종 때 다른 속악들과 함께 일찍부터 산개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정읍사>는 연구자들이 논하듯이, <쌍화점>과 같은 그런 음설지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동>도 후에 가사의 산개가 논의된 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쌍화점>처럼 노골적인 음설지사는 아니었던 까닭에 성종 때 산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종 13년에 음사와 석교의 기준에서 고려속가를 거의 정리할 때 <정읍사>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조선시대 중에서도 중종대의 미의식의 기준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 시대에 음사의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정읍사>를 음사로 보았듯이, <정읍사>를 석교, 다시 말하면 불교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 3.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의 관련

<정읍사>가 다른 고려 속가와 같은 음사가 아니며, 불교적인 성격도 지녔음은 鶴蓮花臺 처용무합설의 구성으로 미루어 보아도 추정할 수 있다. 선달 대회 일 하루전에 궁중에서 逐鬼 행사로 나례를 행하였는데 그 진행 절차 중에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이 들어 있다.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은 『악학궤범』을 보면

처용가-봉황음-정과정-정읍사-북전-영상희상-보허자-정재-처용가-봉황음-삼진작-정읍-북전-미타찬-본사찬-관음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재가 <동동>임을 생각하면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서 사

용된 속악은, 유교적인 내용인 <봉황음>·<보허자>·<삼진작>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종 13년에 가사가 산개되거나 개편된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종 13년에 가사가 문제가 되어 개편된 작품들은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鶴蓮花臺處容舞合設에 대해서는 종종 원년 병인 11월 병신에 이미, ‘나례가 絃手之輩에 의한 雜戲’라 하여 폐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古風이기에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종종 13년에 드디어 가사를 산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정읍사>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의 관련으로도 그 성격을 어느 정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위의 진행절차 중의 정제는 <동동>인데 종종 13년에 <동동>이 음사로 인식되어 <신도가>로 대체된 이유를, 이현수는 ‘淫詞라 내세운 表面的 理由보다 頌禱之祠여야 한다는 宮中舞樂으로서의 必須條件 때문’<sup>20)</sup>이라고 보았으며, 장사훈은 ‘井邑詞·動動詞의 音樂이 衰微한 까닭’이라고<sup>21)</sup> 보았다.

『중종실록』에서 음율에 관한 논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음악적인 것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처용잡희가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전연 맞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동>을 음사라고 하였지만 성종 때에는 전연 문제시되지 않고 있던 것이 종종 원년에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폐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가 고풍이므로 없애지는 못하고 13년에 다른 노래들로 바꾸면서 전체 작품들에 대하여 음사니 석교니 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귀신을 내쫓는 나례의 성격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정읍사>도 나례의 처용잡희의 진행과정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지현영은 <처용가>는 민속, <봉황음>과 <정과정>은 유교, <복전>은 음사, <영산회상>·<미타찬>·<본사찬>·<관음찬>은 불교적인 것으로 보고,

‘鳳凰吟’·‘鄭瓜亭’·‘井邑詞’·‘北殿’節次의 진행은 ‘處容歌’歌詞의 歌意 내용과 相應相照되어, 驅儺儀式의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바꾸어 말하면, ‘鳳凰吟’·‘鄭瓜亭’·‘井邑詞’·‘北殿’은 ‘處容歌’歌詞의 結構인

20) 이현수, 『高麗歌謠 動動歌 研究』, 『東岳語文論集』 제8집, (1972), 140쪽.

21) 장사훈, 『國樂論攷』(서울대출판부, 1974), 429쪽.

① 序詞 ② 處容의 雄姿頌揚 ③ 疫神脅迫- 呪詞의 발동 ④ 疫神의 哀願逃  
避와 相照相應되는 전개라 보려는 것이다.<sup>22)</sup>

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巫覡의 解冤逐邪의 의식인 푸닥거리 등에 에로틱한 것  
이 도입되는 현상’에 대해,

‘處容歌’의 “아으 들흔 내해어니와 들흔 뉘해어니오”를 보강 강조하는 部  
位를 차지하고 있는 ‘井邑詞’·‘北殿’의 기능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니, ‘井邑  
詞’가 ‘淫詞·淫褻之詞’·‘猜忌·警戒·嫉妬之詞’임을 傍證하는 것이라고 나  
는 보려 한다. 왜냐하면, ‘鶴蓮花臺處容舞合設’에서 ‘井邑詞’가 차지하는 部位  
는 現世的인 유교적인 진행에 있어서 피에로적인 諧謔과 에로틱한 분위기  
(舞鼓·井邑舞)를 조성함으로써 劇的 絢爛을 복돋우는 것이라 할지니, 만약  
‘井邑詞’의 部位마저 生硬한 道學的인 貞淑한 가요로 대치한다면, ‘鶴蓮花臺  
處容舞合設’의 舞劇的인 예술성은 半減되고 말 것임으로써이다. 요컨대, ‘鶴  
蓮花臺處容舞合設’에 끼여 있는 ‘井邑詞’의 部位와 기능에서 볼지라도, ‘井邑  
詞’는 淫褻·妬忌·警戒之詞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 나는 보려는  
것이다.<sup>23)</sup>

고 하였다.

<정읍사>를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지현영이 말하듯이,  
井邑詞가 차지하는 部位는 피에로적인 諧謔과 에로틱한 분위기(舞鼓·井邑舞)  
를 조성함으로써 劇的 絢爛을 복돋우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또 학연  
화대처용무합설의 <북전>을 지현영은 읍사라고 하였지만 이 때의 <북전>은  
이미 가사가 개편된 것이어 읍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북전>은 <후전>·<후전진작>·<후정화>등의 별칭이 있는데 이 작품의  
음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 원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실록』  
권3 원년 정월 병오삭에,

이 자리에서 상왕은 맹사성·변계량·허조들에게 말하기를, “후전진작은  
그 곡조는 좋지만, 가사만은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 맹사성 등은 아뢰기  
를, “전하의 분부는 당연하옵니다. 지금 악부에서 그 곡조만을 쓰고 그 가사

22) 지현영, 앞의 논문, 342쪽.

23) 지현영, 위의 논문, 343쪽.

는 쓰지 않습니다. 진작은 만조·평조·삭조가 있는데, 고려 충혜왕이 자못 음탕한 노래를 좋아하여, 총애하는 측근들과 더불어 후전에 앉아서 새로운 가락으로 노래를 지어 스스로 즐기니, 그 시대 사람들이 후전진작이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 가사뿐만 아니오라, 곡조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고 하였다.<sup>24)</sup>

고 하여 가사의 음란함이 심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북전>은 『악학궤범』·『금합자보』·『양금신보』·『청구영언』·『가곡원류』 등 여러 책에 다양한 이름으로 실려 있으나 선조 5년(1572)에 안상이 홍선중 등과 함께 편찬한 『琴合字譜』에 실려 있는 <북전>이 내용의 음설한 점이나 어법의 古形으로 보아 고려 속악 <북전>의 原詞 내지 그 殘影으로 추정되고<sup>25)</sup> 있다. 『악학궤범』에 실려 있는 <북전>은, 세종원년에 음란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고, 성종19년 8월에도 <후정화>란 이름으로 음란한 내용이 문제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것이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어 계속 유지되다가 성종 21년 5월에 <쌍화점>·<이상곡>과 함께 가사가 고쳐졌던 것이다. 그런데 『악학궤범』의 학연화 대처용무합설 진행에 들어가 있는 <북전>은 『금합자보』에 실려 있는 원형과는 내용이 전연 다른 것으로 성종 21년에 새롭게 고쳐진 가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현영이 <처용가>를 음란한 내용으로 보고 <정음사>·<북전> 등이 그러한 <처용가>의 내용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종 13년에 <정음사>와 함께 문제가 된 작품들을 보면 <영산회상> 등의 불교적인 작품을 제외하고는 <동동>·<정음사>·<처용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처용가>는 신라시대부터 역신을 쫓는 문신의 기능을 부여받은 처용의 능력을 더욱 강화한 내용이므로 부정 괴악한 무속적인 성격의 노래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동>은 음사라고 하였지만 중종 때까지 가사가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고려사』악지 <동동>의 주를 보면 ‘동동춤은 그 가사에 송도의 말이 많다. 대개 仙語를 본받아서 만든

24) 當宴 上王語孟思誠 卞季良 許稠等 曰後殿眞勺 其音雖好 其歌詞不欲聞也 思誠等曰上旨允當 今樂府用其調 不用其詞 眞勺有慢調 有平調 有數調 高麗忠惠王 頗好淫聲 與嬖幸在後殿 作新聲淫詞以自娛 時人謂之後殿眞勺 非獨其詞調 亦不可用

25) 河聲來, 『北殿攷』, 『語文論集』23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2. 9).

것이다. 그러나 가사가 비속하므로 여기에는 신지 않는다'<sup>26)</sup>고 하였으므로 이미 송도지사가 많이 쓰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라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 사용된 속악의 가사를 논할 때, <동동>은 송도지사가 많이 사용되긴 하였으나 정월령부터 매 월령마다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사 문면에 표출하고 있고 또 12월령에서는 상 위에 놓은 저를 손님이 가져다 문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어 음사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음사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다른 고려 속악 가사의 음란성이 문제가 되어 여러 번 산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13년까지 <처용가>·<동동>·<정읍사>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들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처용무이다.

그런데 고려 <처용가>는 음설한 내용이 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역신을 내쫓는 처용의 능력에 중점이 있으며 처용에 대한 형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역신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처용의 위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처용가>가 종종실록 13년조의 기록에서 보면 부정 괴악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처용무> 등은 없애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면 가사는 다시 짓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으므로 새로 지은 악장으로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면 <처용가>가 가장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처용가>는 축귀의 능력을 지닌 처용을 노래한 무속적인 성격의 것이고, 또 역신이 처용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내용도 있지만 서두에서 '신라성대 소성대 천하태평 라후덕'이라고 하여 처용을 불교적인 색채로 윤색이 되어 있다.

<동동>은 작품 전체에서, 화자의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송도지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2월령과 7월령에서 불교적인 성격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학연화대처용무합설 속에서 볼 때 모든 사악한 귀신들을 내쫓고 정화시키는 궁중의 나례의식에서 <정읍사>가 불리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는 나례의 성격과 부합

---

26) 動動之戲 其歌詞 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以爲之

될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교적인 내용의 작품들은 물론 <영산회상>·<본사찬>·<미타찬>·<관음찬> 등의 불교적인 노래들, 무속적인 내용의 노래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서 볼 때, <정읍사>는 불교적인 성격의 노래에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동동> 2월령에 보이는 연등회에 높이 켄 등불과 마찬가지로, <정읍사>의 높이 뜬 달은 어둠을 밝히는 부처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조선시대가 유교이념을 표방하였지만 세종대왕 때 <월인천강지곡>이 만들어진 것이나, 세종대왕의 내당 설립 의지로 인해 신하들과 심한 마찰이 있었던 점들을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중종 때에 가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여 그때의 가치 기준으로만 재단해 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 4. <정읍사>의 불교적 성격

위에서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읍사>가, 한해의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는 나례의식의 성격과 부합하는 면이 있었을 것이며 불교적인 성격을 지녔을 것임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정읍사> 가사의 불교적인 성격을 달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불교경전과 일본의 시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읍사>의 달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연의 달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유경환은 <정읍사>의 달의 상징성을,

井邑詞에 노래한 달노래를 默示의 象徵으로 再照明하면 暗黑時代에서 光明時代로 循環되기를 祈願하며, 極樂世界에서 休息하고 있는 英雄과 皇帝가 보름달처럼 光明存在로 回生하기를 祈願하는 노래로 보자는 것이다. 달은 佛敎에서 釋迦世尊으로 比喻하고 있다. 釋迦世尊과 같은 밝은 光明存在 救世主가 出現하여 光明世界를 열어 주기를 기원한 노래로 보자는 것이다.<sup>27)</sup>

고 분석하여 영웅출현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보았다.

27) 유경환, 『井邑詞에 나타난 달(月)의 元型的 象徵』, 『새국어교육』61권 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255쪽.

유경환은 달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였지만, 석가세존과 같은 밝은 광명존재 구세주의 출현을 기다리는 노래로 보았다. 그러나 <정읍사>의 달은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의 광명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1) 『묘법연화경』과의 관련성에서

그것은 먼저 <정읍사>의 가사를 『묘법연화경』제7권 化城喻品과 관련시켜 볼 때 추정할 수 있다. 化城喻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從冥入於冥 永不聞佛名

어두움을 따라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부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두움은 온갖 악이 자라는 곳이다. 化城喻品の ‘어두움을 따라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읍사>에서 ‘진대를 디디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남편이 ‘진대를 디디는 것’이다. ‘진대’는 그 길로 가는 행상인은 물론이고 그 행상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에게도 절망의 길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 아내는 달이 높이 떠서 멀리까지 비추어 달라고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읍사>의 내용에 드러난 작자의 문제는, 남편이 진대를 디딜까 하는 두려움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달인 것이다.

『고려사』에서, 상인의 아내가 남편이 ‘濁泥之水’에 빠질까 걱정하며 불렀다는 배경 설화를 생각할 때, 이 작품의 내용은 남녀간의 음사로만 볼 수는 없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부른 노래였다고 생각된다. 즉 어두운 길을 가다가 다치지 않을까, 강도 등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도박 등의 나쁜 일에 빠지지는 않을까, 혹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빠지거나 않을까 하는 등의, 남편의 안위 전반을 걱정하며 부른 노래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행상인의 아내는 남편이 그 어느 쪽이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기를 달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진대는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지만, 세사적인 여러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는 남편의 내면적

인 정신세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정읍사>의 달은, 여러 연구자들이 해석하는 인류보편적인 상징으로서의 자연적인 달의 이미지를 넘어서 종교적인 상징으로서의 달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달은, 어두운 밤에 달이 만물을 비추듯이, 인간들의 미망을 밝혀주는 광명한 부처의 이미지로서의 달이라 생각된다. <정읍사>의 내용이 『묘법연화경』 제7권 化城喻品の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의 구성 관계나 또 세종대왕 때 불교적인 내용의 악장 <월인천강지곡>이 창작되었는 점 등을 아울러 생각하면, <정읍사>가 조선시대까지 불리어진 고려 속가이지만 작품 속의 달을 불교적인 성격의 달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일본 和歌 작품과의 비교

<정읍사>의 불교적인 성격은, 가사의 내용이 거의 같은, 일본의 平安時代 和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暗きより 暗き道にぞ 入りぬべき はるかに照らせ 山の端の月  
(어둡고도요 어두운 그길에는 들지마세요. 저멀리 비추어라 산등성이의 달이여)

이 작품은 雅致女式部가 지은 것으로 『拾遺和歌集』에 실려 있다.

雅致女式部는 和泉式部(이즈미시키후)인데 平安시대 大江雅致(오오에노가치)의 딸로 977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中古시대 36歌仙 중의 한 사람이며 『和泉式部日記』를 지은 일기문학 작가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冷泉天皇皇后를 모시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 또한 황후궁의 大進이었는데 그녀의 숙모 또한 赤染衛門이었으므로 그녀는 어릴 때부터 和歌작가로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和泉式部는 19세 무렵에 17세나 위인 橘道貞(타치바나노미치사다)과 결혼하였으나 부부간의 불화로 집을 나온 뒤 冷泉天皇의 셋째왕자인 爲尊(타메타카)親王의 구애를 받았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 爲尊親王이 병으로 죽자 이듬해 그의 동생 帥宮 敦道(아츠미츠)의 구애를 받아 4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생활 중에,

번뇌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신을 반성하며 性空上人에게 번뇌에서 구해 줄 것을 원하며 위의 노래를 지어서 보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雅致女式部가 지은 노래는 불교적인 노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내용이 <정읍사>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달은 오랜 세월동안 애증의 생활에서 벗어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을 미망의 세계에서 건져줄 부처를 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생노병사, 희노애락 등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총괄한 근원적인 번뇌임을 알 수 있다.

당대의 뛰어난 시인으로 부귀영화도 누리고 많은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읍사>와 거의 같은 내용인 이 작품의 달이, 부처가 광명을 비추어 자신을 세상적인 미망에서 건져줄 것을 기원하고 있어 불교적인 달 이미지라면 <정읍사>의 달도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이미지의 달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이 작품도 『묘법연화경』제7권 화성유품의 내용이 바탕이 된 불교적인 성격의 노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읍사>의 달과 和泉式部の 노래에서의 달은 그 지향하는 세계는 같지만 작품 속에서의 표현양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읍사>의 달에 비해 和泉式部の 노래에서의 달은 공간적인 제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읍사>의 화자는 달이 높이 돌아서 멀리 비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달의 공간성이 지상적인 것의 어떤 것에도 제약되지 않고 무한하게 확장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和泉式部の 노래 속의 달은 산 끝에 걸려 있어 공간적으로 한정된 느낌이다. 물론 <정읍사>에서는 화자 자신이 아니라 멀리 행상을 나가 있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부른 것인만큼 어느 저자에 가 있는 지도 모르는 남편에게까지 그 빛이 비취기 위해서는 달은 더 높이 더 멀리까지 비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화자 자신의 길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산 끝에 걸려 있는 달이 자기 쪽으로 비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어 구심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두 작품의 기본적인 표현과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이다. 두작품의 화자 모두, 남편 또는 자신이 지상적인 어두움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천상적인 달에게 높이 떠서 비치어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시켜보면 <정읍사>의 내용은 그 당시의 행상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이 출타 중인 아내들이 남편의 안전을 생각하며 부처가 광명한 빛으로 남편을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달에게 의탁하여 빌고 있었던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 5. <정읍사>의 생성 시기

그리고 작품의 시대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려사』악지 삼국속악조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백제의 작품으로 보고 있으나 고려시대 이혼의 작품으로 본 설도 있다. 지현영은, <한림별곡>의 秘密語의인 隱語 ‘내가논디’가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언어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그 작자로 무고의 창작자인 이혼을 주목하여

‘井邑詞’의 작사 작곡은 傳來俗謠를 re-find했다 보기는 어렵고, 高宗~忠宣間에 활약했던

李混父 또는 그의 주변의 그룹(福山莊)과 金善調의 創始者 ‘金善’ 등의 주변(?) 속에서 완성되었으리라.<sup>28)</sup>

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井邑詞’를 창작·작곡한 文人·官人 계급은 그들의 자존심에서 淫詞 ‘井邑詞’의 創作者를 表面에 내세우기까지 大膽할 面子는 없어 “井邑商人之女歌之云云”의 전설을 마련하여 전파시킨 것이나 아닐는지... 또, 或然 ‘井邑詞’의 창시자는 單히 ‘市井歌’·‘商婦歌’·‘娼女詞’의 뜻으로 ‘井邑’·‘井邑詞’로 명명했던 건이 ‘井邑詞(市井詞)’가 유포·전승됨에 따라 普通名詞 ‘井邑’과 地名 ‘井邑’이 일치되는 동일성에서 由因하여 ‘井邑’(市井詞·商賈婦人詞)은 “井邑地方 商人之女”의 所作이라는 ‘井邑詞始源傳說’이 발생하였던 것이나

28) 지현영, 앞의 논문, 352쪽.

아니었던지.<sup>29)</sup>

라고 하여 이혼을 작자로 보고 따라서 생성시기도 충렬왕 전후로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창작·작곡한 문인·관인 계급이 그들의 자존심에서 창작자를 표면에 내세우기까지 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 점은 당시 왕들도 음란한 가사를 짓고 궁중에서 퇴폐적인 연향이 다반사였음을 생각하면 수긍하기 어렵겠다.

임주탁은 『고려사』 ‘악지 속악조의 ‘무고’ 기록과 『陽村集』 寧海府西門樓記의 기록을 중시하여 정읍곡·정읍무·정읍사 나아가서는 무고 정재 전체를 1309~1310년 무렵에 이혼에 의해 제작된 것이 영해부의 연희물로 전승되다가 조선 초기에 궁정으로 수용되었으며 『정읍』은 정읍이라는 고유 지명과는 무관함을<sup>30)</sup> 자료를 구체적이고 세밀히 분석하여 논증하고 있다. 그런데 양태순도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井邑>詞’는 물론이요 <井邑>曲 더 나아가서는 <舞鼓> 呈才가 李混의 소작이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李混이 종래의 鼓를 浮查를 사용하여 舞鼓로 개량·제작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sup>31)</sup> 하였듯이 고려시대 이혼의 창작으로 보는 설의 근거 자료인 『고려사』와 『陽村集』의 자료를 보아도 이혼이 이 무고 정재를 완전히 창작했다고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읍』이 지명이 아니라면 그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가사의 ‘쏘저제’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선 초기 새로이 곡을 창작하기가 힘들어, 고려시대의 가악을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사용하였던 조선 초기에 왜 고려 시대 정재를 구태여 궁중에 수용을 하게 되었는지, 또 고려속가들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만기-중기-급기로 연주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陽村集』의 춤과 소리의 형용이 무고 정재의 절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혼이 가사를 창작하였다면 왜 시장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내용의 노래를 지었는지, 『정읍』의 주제적 성격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도 음사로도 해석될 수

29) 池憲英, 『井邑詞의 研究』, 『高麗歌謠研究』, (정읍사, 1979), 352쪽.

30) 임주탁, 위의 논문, 318쪽.

31) 양태순, 『井邑詞는 百濟 노래인가?』,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이희, 1997), 147쪽.

있어 고도의 함축성을 띤 것도 이혼의 창작설의 한 근거라고 하였는데, 신라시대에도 고도의 함축성을 띤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혼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井邑詞>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려사』 약지 삼국속악조의 기록을 따르고, <정읍사>의 불교적인 성격 등으로 백제 시대의 노래가 고려시대에 궁중 속악으로 들어가면서 다듬어지고 정제된 것이며, 고려속가가 조선시대에 가사가 고쳐졌어도 고려 속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시대 노래로 보고자 한다.

### Ⅲ. 결론

이상으로 <정읍사>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한 뒤 이 작품의 불교적인 성격과 달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이 이 작품을 음사로 보는 기본 자료인 『성종실록』·『중종실록』 등을 검토하여, 중종 13년에 음사와 석교의 기준에서 고려속가를 거의 정리할 때 <정읍사>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중종대의 미의식의 기준에 의한 것임을, 성종 때 고려 속가의 음사가 여러 번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정읍사>는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논하였다. 앞 시대에 음사의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정읍사>를 음사로 보았듯이, <정읍사>를 석교, 다시 말하면 불교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중종실록』에서 가사 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나례시에 연행되었던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서 사용되었던 악장들인데,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구성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사악한 귀신들을 내쫓고 정화시키는 궁중의 나례의식에서 <정읍사>가 불리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는 나례의 성격과 부합될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셋째, <정읍사>의 ‘진데’는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여러 유희에 빠질지도 모르는 남편의 내면적인 정신세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읍사>의 달은, 여러 연구자들이 해석하는 인류보편적인 상징으로서의 자연적인 달의 이미지를 넘어서 종교적인 상징, 즉 인간들의 미망을 밝혀주는 광명한 부처의 이미지로서의 달로 볼 수 있음을 논하였다. 또 <정읍사>의 내용이 『묘법연화경』제7권 化城喻品の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학연화대처용무함설과의 구성 관계, 세종대왕 때 불교적인 내용의 악장 <월인천강지곡>이 창작되었는 점 등을 아울러 생각하면, <정읍사>가 조선시대까지 불리어진 고려 속가이지만 작품 속의 달을 불교적인 성격의 달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하였다.

넷째, 가사의 내용이 <정읍사>와 거의 같은, 일본의 平安時代 여류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하여서도 <정읍사>의 불교적 성격을 논하였다.

일본의 작품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벗어나 불교에 귀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은 것임을 볼 때 <정읍사>의 내용도 달이 지상의 어두움을 밝히듯이 부처가 행상나간 남편을, 모든 어두운 길에서 보호해주기를 바라며 기원한 노래로 볼 수 있을 것임을 논하였다.

다섯 째, <정읍사>의 생성시기에 대해서는 백제 작품설, 고려 작품설로 크게 나뉘어져 있지만, 고려 시대의 근거자료가 되는 『고려사』악지나 『양촌집』에서 이혼이 <정읍사>를 창작하였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나 궁중 속악으로의 유입과정 등을 생각할 때 역시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려사』삼국속악조의 기록과 <정읍사>의 불교적인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백제 시대의 노래로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정읍사, 고려사, 고려속가, 읍사, 악학궤범, 성종실록, 중종실록, 나례, 학연화대처용무함설, 불교, 묘법연화경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규태, 『고려속요의 연구』(학예사, 1976)  
김대행 외, 『고려가요의 정서』(개문사, 1993)  
김형규, 『고가요주석』(일조각, 1968)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국학자료원, 1994)  
양주동, 『여요전주』(을유문화사, 1947)  
양태순,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이회문화사, 1997)  
지현영, 『향가여요신석』(정음사, 1947)  
崔龍洙, 『高麗歌謠研究』(계명문화사, 1996)  
최 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논문

- 장귀수, 「정음사연구」, 『공주사대논문집』4(공주사범대학, 1966)  
국어국문학회 편, 『高麗歌謠研究』(정음사, 1979)  
김쾌덕, 「정음사소고」, 『박지홍화갑기념논문집』(1982)  
김완진, 「井邑詞의 解釋에 대하여」, 『국어학』31권(국어학회, 1998)  
김형규, 「井邑詞 註釋」, 『서울대학교 논문집』2집(서울대학교, 1955)  
김형기, 「정음사 풀이에 대한 가설」, 『한국언어문학』11집(1973)  
양태순, 「정음사는 백제의 노래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집문당, 1987)  
유경환, 「井邑詞에 나타난 달(月)의 元型的 象徴」, 『새국어교육』61권 1호(한국  
국어교육학회, 2001)  
유동석, 「<정음사>연구--'저재 녀러신고요'에 대한 어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13권 1호(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9)  
이종출, 「정음사 해석의 재구적 시론」, 『조윤제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1964)  
이희승, 「정음사 해석에 대한 의문점」, 『백제연구』제2집(1971)  
임주탁, 「『정음』의 창작 시기」, 『韓國詩歌研究』창간호(한국시가학회, 1997. 5)  
장사훈, 「정음사의 음악적 고찰」, 『자유문학』27(1959)

- 장지영, 「옛노래읽기」(정읍사), 『한글』109(1955)  
趙載勳, 「井邑歌攷 I」, 『百濟文化』제9집(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6. 12)  
池憲英, 「井邑詞의 研究」, 『高麗歌謠研究』, (정읍사, 1979)  
최정여, 「정읍사 재고」, 『계명논총』3집(계명대학교, 1967)  
허소라, 「井邑詞 主題攷」, 『국어문학』20(전북대학교, 1979)

<Abstract>

## A Study on Buddhist Characteristics of <Jeongeupsa>

Lee, Yeon-Suk

This paper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Jeongeupsa> and scrutinizes Buddhist characteristics and moon of the poem. Primar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Goryeo folk music songs are seen as lewd language in *Royal Chronicles of Seongjong* and *Royal Chronicles of Jungjong* of Chosen dynasty. This is due to ideological valuation of Chosen's noble class. Even though a concession is made for Chosen's noble class, <Jeongeupsa> is far from their measure of lewd language.

Second, songs dealt in *Royal Chronicles of Jungjong* for their words are chapters used in *Hakyunwhadaecheoyongmu* taken to Narye poems. People in Chosen time regarded <Cheoyongmu>, which drives out demon, as weird happening, discussed its abolition and finally replaced it with other poems at the 13th year of Jungjong. <Jeongeupsa> was continued to be song because it was in harmony with the substance of Narye ceremony in that they brighten wicked temperament and darkness and desire to meet a bright new year.

Third, <Jeongeupsa> may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volume 7 of *Myobupyunwaha* sutra. Also, work of a poetess in Heian period(平安時代) of Japan contains almost same story as <Jeongeupsa>, which makes comparison with this work and <Jeongeupsa> possible. Considering above arguments, the substance of <Jeongeupsa> may be a song praying Buddha to protect husbands travelling for sales from every dark roads.

Key Words : Goryeo folk music songs, *Royal Chronicles of Seongjong*, *Royal Chronicles of Jungjong*, *Hakyunwhadaecheoyongmu*, Cheoyongmu, Narye ceremony, *Myobupyunwaha* sutra, Akhakgebum